

일기 작성 양식

이름: 이하음	이메일:	
나이: 11살	직업: 학생	거주지역: 천안시 선방동
본 행사 참여경험		<input type="checkbox"/> 2013 <input type="checkbox"/> 2014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15
(우측 해당란에 ✓ 체크해 주세요):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16 <input type="checkbox"/> 처음 참여

오늘은 아빠랑 언니랑 나는 서울에 갔다. 그때 엄마는 친구 만나러 명동거리에 가서 무궁화호를 갚이 탔다. 아빠랑 언니는 비어폰으로 노래를 들었고, 엄마와 나는 같이 사진을 창문 찍어 댔다. 엄마가 명동거리로하고 아빠와 언니와 나는 지하철을 타니 먼저 교보문구로 갔다. 교보문구로 들어가보니 신기한 게 많았다. 책도 많지만 만년필, 이어폰 등등이 있었다. 나는 먼저 어린이코너로 가서 책을 끌었다. 보고 싶은 책들이 많았지만 아빠가 딱 1권만 사라고 해서 그렇지 않았다. 그 책의 제목은 "이음받아도 괜찮아"였다. 그래서 책을 나누어서 친할머니가 계시는 수유로 갔다. 그리고 토마토를 사서 친할머니 집으로 들어 갔다. 친할머니가 언니와 나를 난다시 서울에 가고 싶다. 반려주셨다.

용지가 부족할 경우 다음 장을 사용해 주세요

"5월 12일 일기 수집 이벤트"는 인간과 기억아카이브와 영국 서섹스 대학교의 대중관찰아카이브 (MOA: Mass Observation Archives)가 공동 주최하는 역사프로젝트입니다. 기증하신 일기는 21세기 한국인의 삶과 문화를 기록화하는 중요 자료로써 학술연구와 교육, 전시, 출판 등 문학 컨텐츠로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귀하의 컨텐츠 공개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 합니다. 아니오,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문 학술연구진만 제 일기를 볼 수 있습니다.온라인 참여도 가능합니다. <http://hmarchives.org/omeka/512diary/index.html>